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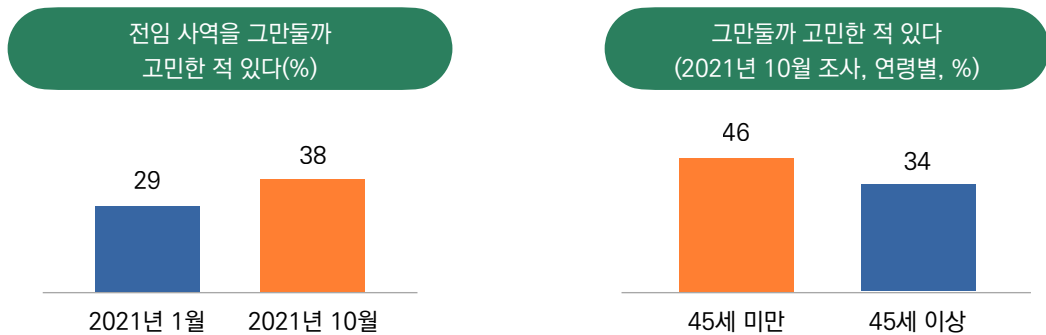
1. 코로나 이후 미국 목회자 상황



미국 목회자 38%, 지난 1년간 '전임 목회 그만둘까 고민한 적 있다'

- 미국 바나그룹이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미국 목회자의 38%가 지난 코로나19 이후 1년 간 전임 사역을 그만둘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, 이는 지난 1월 조사때 29%보다 9%p가 증가한 수치이다.
- 특히 45세 미만 젊은 목회자들(46%)이 45세 이상 중장년 목회자(34%) 보다 그만둘 생각이 더 높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.
- 바나그룹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목회로 인한 번아웃 현상이 있었는데,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.

[그림] 지난 1년간 미국 목회자의 전임사역에 대한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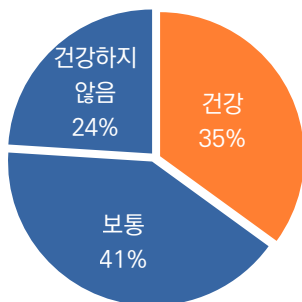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Barna Group, 2021.11.16., '38% of U.S. Pastors Have Thought About Quitting Full-Time Ministry in the Past Year' (2021년 1.22-27, 2021.10.12.28)

**2021년 1월은 413명, 2021년 10월은 507명 목회자 대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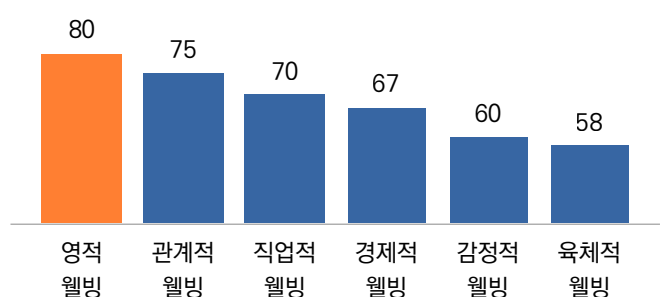
● 미국 목회자의 건강지수(6가지 웰빙지수 총합), '건강하다' 35%!

- 미국 목회자에게 6가지 웰빙 지수에 대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, 35%가 '건강'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'보통'은 41%, '건강하지 않음'은 24%였다.**
- 6가지 상세 웰빙 지수별로 보면 '영적 건강함'이 80%(매우좋다+좋다)로 가장 높았고 '육체적 건강함'이 58%로 가장 낮았다.
- 전체적으로 건강지수가 낮은 목회자일수록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미국 목회자 건강 지수 (6가지 웰빙 지수 총합)**



[그림] 미국 목회자의 6개 웰빙 지수별 건강도 ('매우좋다+좋다' 비율) (%)
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, 2021.11.16., '38% of U.S. Pastors Have Thought About Quitting Full-Time Ministry in the Past Year'(507명, 2021.1.22.-27)

** '건강'은 6개 지수 모두 '매우좋다+좋다'는 비율, '보통'은 6개 지수 중 3개 이상 '매우+좋다'는 비율, '건강하지 않음'은 6개 지수 중 2개 이하 '매우+좋다' 비율임